STATE OF NEW YORK | EXECUTIVE CHAMBER

ANDREW M. CUOMO | GOVERNOR

즉시 배포용: 2013년 10월 14일

Cuomo 주지사, MTA가 TASTE NY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, 뉴욕 특산 식품, 맥주 및 와인을 판매하는 새로운 매장들을 개장할 것이라고 발표

Andrew M. Cuomo 주지사는 오늘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가 뉴욕에서 생산된 식품 및 음료를 제공하는 Grand Central Terminal에서 새 TasteNY 매장을 증축하여 Taste NY 이니셔티브에 대한 참여를 확대할 것을 발표했습니다. Taste NY는 뉴욕주의 식품 및 음료 매출을 끌어올리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지사가 집중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.

이것은 Penn Station 및 Grand Central 양쪽에서 매일 Long Island Rail Road 및 Metro-North Railroad로 이동하는 통근자들의 기분전환을 위해 만들어진 이동식 카트에서 최근 뉴욕 산 와인, 맥주 및 발효주를 소개하는 MTA를 기반으로 세워진 것입니다. 이 상품들은 해당 카트에서 "Taste NY" 간판을 통해 시판되고 있으며 카트 재고에 추가되기 때문에 회전율이 매우 빠릅니다.

Cuomo 주지사는 "Taste NY는 뉴욕주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의 관광 사업 및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뉴욕에 걸쳐 생산되는 세계적 수준의 식품과 음료를 강조하기 위한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 "뉴욕주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자주 이용하는 교통 위치 중 하나인 Grand Central Terminal에서 Taste NY 매장을 개장하는 것은 뉴욕 농업 산업이 제공해야 하는 풍부한 농산품들을 선보이고 여행객들이 놓친 것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독려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."

MTA 회장 겸 CEO인 Thomas F. Prendergast는 "Grand Central은 관광객과 쇼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명소일 뿐만 아니라 교통 중심지에 해당한다"고 말했습니다. "온 정성을 들여 만든 식품 및 음료와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뉴욕 와인 및 맥주 제조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과 함께 지금이 바로 뉴욕에서 가장 훌륭한 식품 및 음료 산업에 종사하는 생산자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통근자, 여행객, 관광객 및 쇼핑객들을 위한 멋진 시장을 개장해야 할 때입니다."

몇 주 전 이 매장을 관리하려는 Metro-North 인근 지역의 운영자들이 경쟁력 있는 RFP(Request for Proposal)을 제출하기 시작했으며 이 제안서에는 일일 평균 750,000여 명의 방문객들을 수용하는 터미널에서 다양한 고급 매장들과 합류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. Taste NY 매장은 뉴욕주에서 가장 우수한 식품 및 뉴욕 와이너리 및 양조장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Cuomo 주지사가 올해 시작한 프로그램에서 가장 거대한 출구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.

이 RFP의 대상은 이 뉴욕주 와이너리 및 기타 소매업체를 첫 번째 독립형 "Taste NY" 매장의 잠재 사업자로 선정합니다.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식품 판매를 위해 전용 Taste NY 공간이 있는 New York State Thruway의 New Baltimore 휴게소를 방문했습니다.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: www.governor.ny.gov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press.office@exec.ny.gov | 518.474.8418